



기획시리즈



임경빈
아카시아 연구회장

조경수목산책 (XVI)

—참나무—



▲서울 남산의 신갈나무숲 1993. 9. 3

1. 머리말

나의 고향마을에는 꿀밤나무(상수리나무의 방언)가 있었다. 가을이 되면 꿀밤(도토리의 방언)을 모아 꿀밤묵을 만들어 먹었으나 그 수는 결코 많은 편은 못되었다. 땀감으로 사람들이 참나무의 줄기를 쳐서 돌아나는 움가지가 크게 자랄 수 없어 꿀밤을 모을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우리집 뒤 낮은 산자락에는 몇 그루의 큰 꿀밤나무가 있었고 그 줄기의 색깔은 진한 검정이었다. 사람의 접근을 막을 듯한 색깔과 수피의 거칠음이 생각한다. 이 나무 옆에는 연자방아가 있고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 꿀밤나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 몇 알의 꿀밤이 떨어지는데 우리 또래는 그것을 주어서 그 생김새를 사랑하였고 그 윤기 있는 껍질의 매끄러운 촉감을 좋아했다. 몇 알의 꿀밤을 저고리 안 주머니에 넣어 놀다가 서너명의 친구가 모여서 서로의 꿀밤을 내어서 비교하고 묘한 생김새를 감상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릴 때 꿀밤이라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것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자라난 자연의 아이들이었다. 지금이야 장난감 상점에 별난 완구들이 진열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그 재료는 모두 플라스틱이 아니면 양철조각들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훼손시켜서 만들어낸

산물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자동차와 몇 톨의 꿀밤은 그 대조가 어려울지 모르나 나는 꿀밤이란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아이들의 편을 들고 싶다.

나는 요사이도 몇 알의 꿀밤이 얻어지면 작은 그릇에 담아 내 방의 한 구석에 두고 본다. 나무의 조정적 가치라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볼 수 있다. 무더기로 모여난 상수리나무 숲의 야성적인 경취에 도취할 수도 있고 돌아나는 잎의 어린 싹에 황홀을 느낄 수도 있고 마른 잎을 울리는 찬 겨울바람소리를 찬미할 수도 있다.

아래로 처지는 수꽃이 창조주의 절묘한 예술적 설계라는데 경탄하는 것은 높은 수준에 이른 교양인의 특권임에 틀림없다. 소리 없이 떨어져 낙엽 위에 놓인 도토리의 광택은 자연의 크나큰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움이란 것은 나뭇잎 한 장의 일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찮은 잡풀의 조알만한 크기의 꽃에 담긴 우주의 신비에 경악해보는 어느 시

인의 노래는 너무나 값진 것이다. 아름다움이 인간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파고들어가 심취의 세계를 전개해서 그 추상의 공간에서 유유히 자적하는 정신의 세계를 가져보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것을 감상하는 인간의 자세와 여유가 문제이다. 유연(悠然)히 남산(南山)을 바라보노라 하는 심정의 경지를 누구나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 것도 아니다. 참나무류의 나무는 대체로 강직하고 투박하고 어느 모로서는 어설피 질서의 미를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서 유연하고 잔잔한 물결과 같은 여성적 미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지구상은 아름다운 예술적 작품으로 충만해 있다. 하나도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 예술적 미를 어느 수준에까지 올려놓는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에 달려 있다.



▲떡갈나무. 광릉시험림. 1983. 7. 3



▲신갈나무. 만주 길림성. 천산(千山).
1989. 8. 5



▲갈참나무. 경북 안동 단산.
천연기념물 제285호. 1992. 8. 8

▶굴참나무의 수피. 경북 불영사.
1988. 4. 15

2 참나무의 종류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구체적 나무는 없다. 우리 고향에서는 상수리나무를 꿀밤나무 또는 참나무로 말했으나 이것은 사투리 이름이고 정식의 명칭은 아니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물참나무, 갈참나무 등등을 모아서 참나무라고 통칭(通稱)한다. 비슷한 여러가지 나무를 말하는 이름을 총명(總名)이라고 한다. 총명의 보기로는 대나무 또는 포플러 같은 것이 있다. 대나무라 하면 왕대, 맹종죽, 이대, 오죽, 숨대 등을 통틀어 말하는 명칭이며 포플러에는 양버들, 미류나무 등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가 그 안에 딸려 있다. 플라타너스만 해도 총명이다. 소나무 하면 그 안에는 처진소나무, 황금소나무, 반송 등

비교적 많은 품종이 있으나 이때 소나무를 총명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와 같이 하다보면 모든 수종은 그 안에 품종을 가질 수 있어서 모조리 총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종(種 species)의 수준의 것을 모을 때 총명의 성격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는 참나무 속(屬)에 딸리는 많은 수의 종이 분포하고 있다. 참나무를 영어로는 오우크(oak)라 말한다. 미국 캐나다에도 많은 종의 오우크가 있다. 오우크 즉 참나무 속의 나무는 상록성인 것과 낙엽성인 것으로 둘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곳에 있어서는 주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에 대하여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주도나 남쪽 해안가에서 자라는 상록성 참나무류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 반도부의 대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종만 생각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산야에는 참나무류의 수종이 매우 많고 왕성한 숲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숲의 상징으로 참나무를 내세운다. 그만큼 참나무류는 우리나라 삼림의 대표 수종군이라고 할 수 있다.

낙엽성참나무는 도토리(橡子)의 성숙 완료에 1년을 요하는가 아니면 2년을 요하는가에 따라 나뉜다.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의 열매는 성숙에 2년을 요한다. 말하자면 봄에 꽃이 피고 다음해 가을에 열매가 익어 떨어진다. 이들 나무는 줄기의 색깔이 검기 때문에 흑색

계 참나무(black oaks)라고 말한다. 잎에 거치가 발달하고 엽맥이 거치의 끝쪽으로 튀어나가 바늘 끝과 같은 돌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까끄라기 망(芒)자를 넣어서 망상(芒狀)거치라고 한다.

굴참나무의 잎 뒤에는 털이 많이 나서 희게 보이지만 상수리나무 잎 뒤는 광택이 있는 녹색으로 보여 구별이 잘 된다. 그러나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서로 교배가 쉽게 되어서 잡종을 잘 만든다. 그래서 중간 형질을 가진 개체도 종종 나타난다. 굴참나무이긴 해도 잎 뒤에 털이 적은 것을 물굴참나무라 부르기도 한다. 상수리와 굴참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다. 굴참나무는 상수리나무보다 내한성이 강해서 상수리보다 더 높은 산지에 나타난다.

다음은 떡갈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 열매가 꽃핀 그 해 가을에 성숙하는 무리인데 줄기 색깔이 그다지 검지 않아서 백색계 참나무(white oaks)라 부른다. 잎의 거치가 물결치듯하고 측맥이 뚜렷한 돌기를 만들지 않는다. 백색계통의 참나무류는 잎 뒤에 털이 있고 없고 잎자루가 짧고 길고 또 각두가 얇은 접시모양이거나 아니면 깊은 종지형이거나 그리고 잎밑(葉底)이 귀뿌리형(耳底)이거나 췌기형(銳底)이거나 하는 등등으로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흑색계처럼 백색계 참나무에 있어서도 종 사이에 잡종이 잘 만들어지므로 중간형질을

보이는 개체가 많아 식별을 어렵게 만든다. 또 같은 나무에 달리는 나뭇잎도 모양에 변이가 크다. 그 중 대표가 된다고 생각되는 잎을 식별의 대상으로 하면 된다.

신갈나무는 북쪽지방이 고향이고 이것이 점차 남쪽으로 향해서 이동했고 그러던 중 남쪽의 졸참나무와 교배를 해서 튀기를 만들면서 물참나무를 만들게 되었다는 가설이 있다. 남한의 높은 산 꼭대기에 나는 신갈나무는 졸참나무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신갈나무로서의 순수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중앙에 있는 남산에는 신갈나무 미림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던 것이 서울이란 도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고립된 격리집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갈나무의 섬이다. 남산의 신갈나무 숲은 조경적 가치가 뛰어나고 남산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이며 학술적 가치도 높다. 그래서 잘 보호가 되어야하고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서울시내 종묘나 궁궐 등 낮은 평지에 갈참나무 등의 노거목이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는 한때 참나무류가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성적인 경취가 있어서 당시에도 보호가 되었을지 모른다.

3. 참나무와 혼다교수의 삼림대론

혼다교수는 일본 동경제국대학에 1893년 9월 조림학강좌가 설치된 이래 1927년까지 약 33년간 조림학강의를 담당한 말하자면, 일본임학의 창설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필자가 혼다교수의 강연을 들은 것은 1938년 중학교 2학년때 당시 대구역전에 있는 공회당의 붉은 벽돌건물 안이었다. 의자에 앉아서 정력적인 강연을 했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아직 그대로 필자의 머리 속에 남아 있다. 혼다교수는 많은 저서를 내고 있는데 그 중 조림학전문이란 책이 1912년에 나오고 그 안에 86면에 걸쳐 조선삼림대론이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것이 생각건대 우리나라 삼림대에 관한 가장 시초의 보고가 아닌가 한다. 그 뒤 우리나라 삼림대에 관한 관찰과 연구가 있어서 학문상의 발전이 있다고는 하나 혼다교수의 논의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곳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 편이므로 참나무류 특히 낙엽성 참나무류를 중심으로한 말하자면 온대림(낙엽활엽수림)에 초점을 맞추어 골라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일반론

조선의 지질의 대부분은 편마암과 화강암인데 눈으로 보아 그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다. 즉 화강암으로 된 산은 그 황폐가 심하고 지면이 흰색을 띄우지만 편마암

지대는 삼림의 황폐가 덜하고 지면이 갈색을 띄우면서 임상도 화강암지대보다는 더 낫다. 이것은 농업상으로 볼 때에는 남한쪽의 지력이 높고 북한지역은 척박하다 할 수 있으나 임업경영대상지로 볼 때에는 이에 상반한다. 즉 남한의 산들은 돌기가 심하여 경사지고 그 결과 건조한 편이나 북부지방의 임지는 부식을 가지고 습기를 유지하는 힘이 강해서 울창한 숲을 만든다. 그는 다음의 서술을 하고 있다. 즉 1910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선(남북한 합계)의 삼림면적은 약 1,174만 헥터(나무가 서 있지 않은 곳은 제외시킨 통계치인 듯)로서 그 중 성림지 면적이 약 512만 헥터 어린나무 발생지가 약 662만 헥터로서 전국토 면적의 약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이 풍부한 삼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했다.

(2) 삼림대의 구별과 명칭

한반도의 삼림의 모습을 살펴 볼 때 그 원래의 삼림은 많이 파괴되었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북부 대동강, 압록강 상류지방과 몇몇 높은 산 위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높은 산이라 하면 낭림산, 금강산, 지리산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온대림에 해당하는 곳의 임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남아있는 식생을 조사하고 식생천이의 과정을 볼 때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일

본의 명칭을 옮겨다 사용하는 것에 별모순이 없는 것이라 했다. 다만 일본에는 너도밤나무가 있고 한국에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명칭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했다. 즉 일본처럼 난대림, 온대림 그리고 한대림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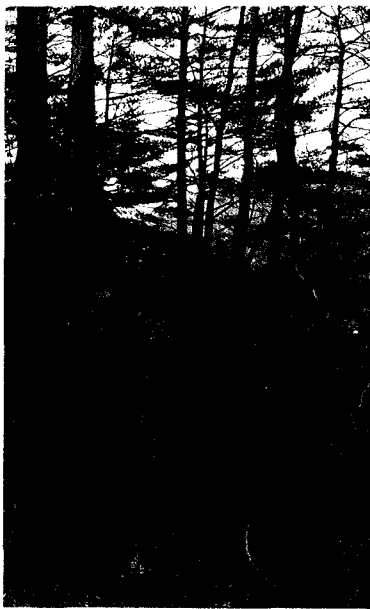
(3) 한국의 온대림

우리나라 온대림에는 너도밤나무가 없고 일본에 많다. 그래서 온대림을 너도밤나무대로 말하고 있다. 한때 소련재무성의 조사로서 우리나라에 너도밤나무가 있다고 한 적이 있으나 찾을 길이 없고 무언가 착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혼다교수는 일본의 너도밤나무대의 구성수종이 한국의 온대림의 구성수종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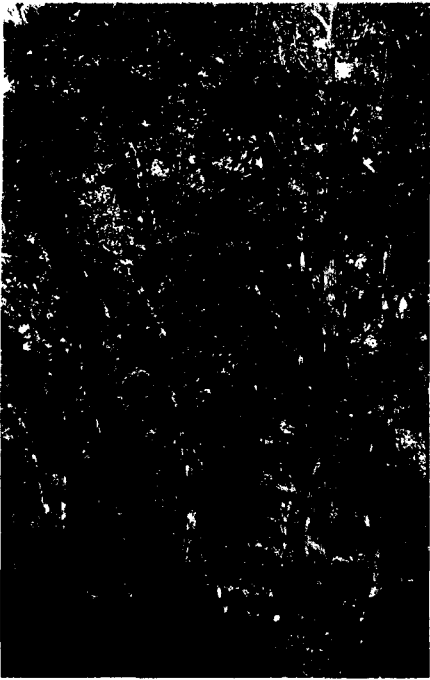
사하고 또 온대림의 양쪽 끝이 난대림과 한대림에 인접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과 그 구성수종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까닭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한반도의 삼림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없다고 했다. 한반도의 온대림은 그 영역이 매우 넓고 약 8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온대림은 사람의 간섭을 받아 고유의 임상이 크게 파괴되어서 그 구성수종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현재의 수종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한반도 온대림 남쪽에 있어서는 졸참나무, 물참나무, 때죽나무가 특징수종이고 온대림 북부의 특징수종은 떡갈나무와 신갈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혼다교수가 이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 참나무류는 온대림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불가결한 수종으로 말할 수 있겠으나 이들 수종이 결코 온대림을 대표할 영구적 임상의 주림목(主林木)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또 추리하기를 한반도의 온대림의 기후관계상 일본의 온대림처럼 너도밤나무의 단순림 형성과는 그 사정이 다른 까닭에 한국온대림의 주림목은 반음수인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로서 일본의 너도밤나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고 했다.

대체로 한반도의 온대림에 있어서는 현재 개서어나무와 서어나무 따위는 계곡부 또는 산의 북



▲굴참나무와 소나무의 혼효림. 경북 불영사. 1988. 4. 11



▲서어나무 숲. 화업사 뒷편. 1986.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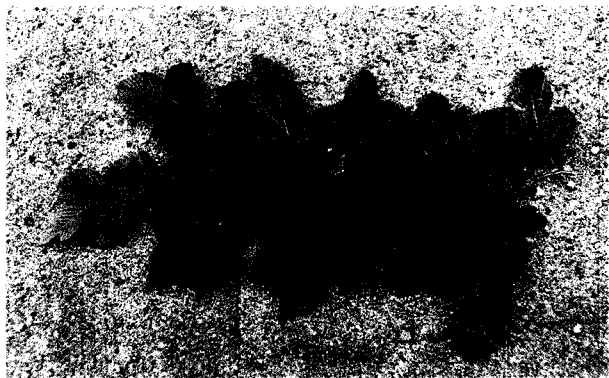
쪽면 등 비교적 그늘진 곳에 나고 있지만 그 수는 결코 많은 편은 못된다. 온대림 남부지역은 인간들에 의한 나무의 벌채이용이 심해서 서어나무류의 수는 극히 적다. 그러나 한라산의 천연온대림에 있어서는 서어나무류가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 고찰할 때 한반도의 주림목은 서어나무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대림 대부분의 평지에 있어서는 현재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양성의 졸참나무와 떡갈나무를 볼 수 있으므로 졸참나무와 떡갈나무의 존재로서 온대림의 영역을 정하는 참고자료로 할 수 있다고 혼다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 등은 그 특성

이 너도밤나무처럼 음성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의 기후는 대륙성이고 공중습도가 낮고 일조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음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어나무류가 현재 졸참나무 그 밖의 양수수종과 혼교하고 있는 것은 모름지기 인위적으로 울폐가 깨어진 뒤 침입한 것들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졸참나무나 떡갈나무 아래에서 서어나무류가 쉽게 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내음성이 비교적 약한 데 있다고 보아진다.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는 평지에 있어서는 보기 힘들고 다만 임상이 보호되고 있는 곳 가령 제주도의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 낭림산 그밖의 높은 산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서어나무류는 너도밤나무에 비하면 북쪽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약하다 그래서 온대림의 위쪽에 이르면 서어나무류는 점차로 신갈나무에 양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대림과 서어나무류를 주림목으로 하는 온대림은 서로 직접 이어지기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이 두 삼림대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전나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솔송나무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전나무의 분포를 보면 소위 온대림 북부부터 한대림의 남쪽(아래쪽)에 걸쳐서 신갈나무(혼다교수는 물참나무 *mizunara*로 표현하고 있다.)의 숲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전나무가 제거되고(산불과 화전경작) 그 뒤에 신갈나무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갈나무는 내화성이 강한 편이고 또한 내한성이 강해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음성에 기울어진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신갈나무가 숲땅을 점유하게 되면 그 임상을 비교적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온대림은 그 면적이 넓어서 다시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서어나무의 잎. 전북 장수. 1989. 6. 10

생각할 수 있다. 즉 남반부는 밤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등이 자생하는 곳이고 북반부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세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앞의 것을 온대남부 또는 온대하부라 부르고 뒤의 것을 온대북부 또는 온대상부라고 부른다. 혼다교수가 서술을 통해서 온대림 남부와 북부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적해보면 대체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온대림 남부와 중부를 합쳐서 남부로 보고 온대림 북부를 북부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대동강하류지방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접경지대는 온대림 남부의 북방지역으로 볼 수 있다.

(4) 온대림 임상의 변화

혼다교수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참고가 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온대림에 있어서는 일본의 온대림 대표수종인 너도밤나무가 없고 그 고유의 임상은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 등으로서 이들 숲이 산불 또는 개간 등으로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양성이며 종자 전파가 잘될 수 있는 붉나무, 개울나무, 청미래덩굴, 짙레나무, 버드나무, 산초나무류, 개암나무류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 수종이 숲을 이루게 되면 점차 다시 서어나무류와 같은 반



▲신갈나무의 어린 묘 두 그루. 오대산에서 1994. 10. 25

음성의 나무가 들어오게 되고 끝내는 온대림 고유의 수종군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벌채 또는 산불 등의 영향이 계속 주어질 때에는 드디어 내화성이 있는 온대수종 즉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으로서 제2기(第二期) 종말의 숲을 형성하게 된다. 제1기는 고유수종으로 형성된 서어나무 따위를 말한다. 제2기의 숲이 계속 간섭을 받게 되면 소나무의 침입을 보게 되고 이것을 제3기의 숲이라고 할 수 있다.

한대림의 고유수종은 분비나무, 전나무, 주목, 잣나무 등인데 이것이 파괴되면 신갈나무, 박달나무, 사시나무, 황철나무, 떡갈나무 등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난대림의 경우도 그 고유수종은 가시나무류, 잣나무류,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종이지만 이러한 숲이 산불 또는 개간 등으로 파괴되면 양성을 띄고 종자 전파력이 있는 예덕나무, 비목나무, 굴피나무 그리고 온대수종인 서어나무류가 들어오게 된다. 이 숲

이 잘 보호되면 다시 그 숲 안에 난대고유의 수종이 들어오게 된다. 반면에 숲이 계속 파괴를 받게 되면 내화성이 강한 온대수종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가 침입하게 된다. 이것이 다시 파괴를 거듭하게 되면 소나무와 노간주나무가 들어서게 된다.

(5) 논의

이상 길게 혼다교수의 서술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해야할지 그것은 장시간을 둔 관찰과 조사로서 논박도 되고 시인도 되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한대림, 온대림 그리고 난대림 모조리 어떤 간섭을 받아 생태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곳에 참나무류가 들어서게 되고 참나무 숲은 긴 시간을 두고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는 풀이이다.

혼다교수의 논조는 참나무류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온대림의 극상수종으로는 보기 어렵고 준극상수종쯤을 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상록활엽수림대 - 가시나무대
- 난온대림대

낙엽활엽수림대 - 서어나무대
(참나무대) - 냉온대림대

상록침엽수림대 - 전, 잣, 가문비, 눈잣나무대 - 아한대림대

극상이란 어떤 기후조건 아래에서 끝내 그곳을 점유해서 영구적으로 지탱되는 식물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가 동질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이다.

이 영역을 소규모로 갈라놓는다면 소위 다극상설(多極相設)이 시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 일본의 나카니시(中西) 등의 저서(日本植生圖鑑, 保育社, 1985)에는 『줄참나무는 원래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한 지대가 본래의 생육지이고 한국, 일본의 중부지방 및 북해도 등 일부 냉온대하부 또는 남부의 극상림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더 부연해서 강우량이 낮은 건조지대에 있어서는 소나무가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극상 그 자체의 뜻 해석과 또 구성수종에 대하여서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지는 않나 생각된다.

[주] 혼다교수는 긴 서술의 문장 중에서 신갈나무(モンゴノカシワ)의 용어가 전연 나타나지 않고 물참나무(ミズナラ)의 이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물참나무를 필자는 일단 신갈나무로 취급해 두었다. 물참나무는 신갈나무와 줄참나무 사이에 생겨난 튀기라는 설명이 있다.

4. 참나무의 노거목

각 나라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거목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이란 말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용어는 약 200년전 독일의 훔볼트란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 그는 남미의 적도부근을 여행하다가 큰 나무를 발견하고 천연기념물(Naturdenkmal)이라고 표현했으며 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노거수를 뽑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1962년에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호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노거수는 인류의 문화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이유로서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안동 용계에 있는 은

행나무를 살리기 위해 10수억의 재정을 투입하였다고는 속리산의 정이품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역시 수억의 돈을 쓴 것으로 안다.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거목을 살펴보면 대개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영성(靈性)을 부여하고 서낭당나무 또는 신목(神木) 또는 당산목(堂山木)으로 일컬으면서 숭앙하고 나아가 민속신앙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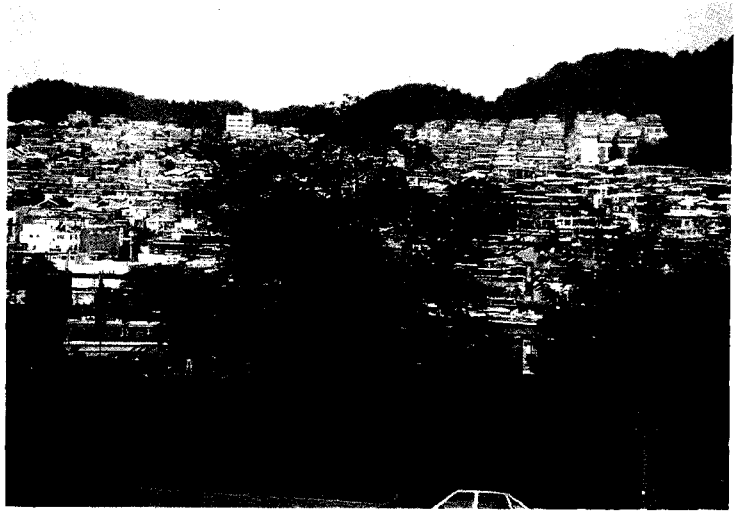
수백년 또는 천년을 살아온 나무들은 우리 선조들의 이어지는 생활 속에 용유되면서 귀중한 역사성을 가지게 되었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생활 교훈을 끊어모을 수 있어서 그러한 나무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의 내용을 보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해송, 이팝나무, 회화나무, 왕버들, 후박나무 등 장수하는 나무가 많고 참나무류에 있어서는 굴참나무가 3건, 갈참나무가 1건으로 되어 있다.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참여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1990년 3월 9일 비행기로 강릉으로 가서 버스편으로 울진으로 갔다. 이곳에서 천연기념물 제96호 소위 울진의 굴참나무를 보았다. 나무 옆을 지나가는 시내 이름을 왕피천(王避川)으로 말하는데

이 나무는 한쪽 언덕 위에 서 있다. 수령이 300년으로 추정되고 수고는 20m에 이르는데 줄기가 상처를 받아 외과시술한 자리가 크게 눈에 띈다. 지난날 어떤 왕이 싸움터에서 세력이 몰려서 이 나무 아래에 와서 피신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굴참나무가 상수리나무를 제쳐놓고 그루나 천연기념물에 등극하고 있는 것은 이채롭다.

서울시 신림 3동에 큰 굴참나무가 아파트 단지 내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수령이 1000년으로



▲굴참나무의 거목. 천연기념물 271호. 서울 신림동. 1992. 4. 8

기고 잘 보호하고 있다. 서울시내 낮은 곳에 이러한 굴참나무가 있다는 것은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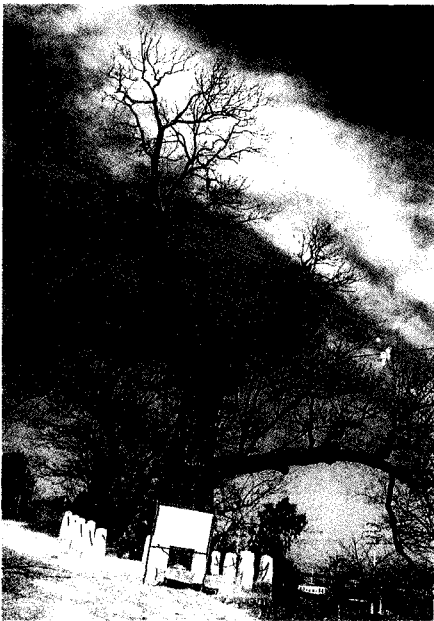
경북 영풍군 단산면 병산리 마을 언덕 위에 서 있는 갈참나무를 찾은 것은 1992년 8월 8일이었다. 더위가 심했으나 이 나무가 서 있는 언덕은 시원한 편이었고 비가 약하게 뿌리고 있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라온 이 나무는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고루 자라서 수관이 둥근 반달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나무는 동신목이었고 며칠전 MBC-TV에서 이곳을 찾아 동네사람을 시켜 동신제를 실연하도록 하고 그것을 필름에 담아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모양이다. 나무는 건강한 편이었고 가지는 멀리 뻗어 한쪽까지는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다. 이 나무도 줄기에 외과시술을 받고 있었다. 내가 이 나무를 찾았을 때 겨우살이

가 너무나 많이 기생하고 있었다.

그 겨우살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 나무는 높다란 언덕 위에 혼자서 시원하게 서서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힘을 가진 나무로 알고 해마다 정월 보름에는 제를 올리고 있다.

경북 안동군 임동면 대곡리에 도 큰 굴참나무가 있었다. 수령이 500년쯤이라 하고 수관의 발달이 대단했다. 왕성한 생명의 힘이 온 가지를 지나서 하늘로 발산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 288호로서 가슴높이 줄기둘레가 5.1m에 이르는 거창한 몸집의 나무였다. 안동 지방에는 이 나무를 참나무라 부르고 있었고 그 열매를 꿀밤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필자의 고향의 사투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참나무류 중 장차는 천연기념물로 승격될 것이 나타날 것으로



▲굴참나무의 거목. 천연기념물 96호. 1990. 3. 9

추정되고 있다. 말로는 강감찬 장군이 이곳을 지나다가 그의 지팡이를 쬐은 것이 살아나서 이 나무로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소중히 여



▲갈참나무의 서낭당나무. 천연기념물 285호.
경북 영풍 단산. 1992. 8. 8



▲갈참나무의 거목. 천연기념물 288호. 경북 안동 임동. 1992. 8. 9

생각된다. 이러한 나무들의 조형미는 뛰어난 것으로 잘 보호되고 또 감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야생의 숲, 그 아름다움

숲의 아름다움에 대한 서술은 흔하다. 묘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덮고 있는 원시의 숲은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필자는 오대산 비로봉 위 오대산맥의 능선마루에 펼쳐진 신갈나무의 늙은 자연림을 보았다. 한나무 한나무는 독특한 개성을 지녀서 몸매의 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했으나 집단으로 모여 나타내는 종합의 미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 숲은 장엄하고 당당하고 황홀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질서를 가지고 무언가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해 주는 함축이 있었다. 수량으로 셈할 수 없고 인간의 부

족한 언어의 용량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인간은 이러한 분위기에 젖을 때 자기 완성을 위한 충격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역할을 그 숲이 해내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그 숲의 존재의 가치는 많은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인간은 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존재이다.

사람은 입은 옷의 모양과 색깔을 염두에 두는 것이며 추운 날씨에도 여자들은 왜 얇은 옷으로 몸을 꾸미고 몸의 곡선미를 드러내고자하는 것일까. 숨기는 아름다움보다는 과감하게 표현하고자하는 타당성을 편드는 미의식 때문일 것이다.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서 굵어 죽은 여자의 사례는 지나치다 하더라도 인간은 먼 옛적부터 미를 추구하는 염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직접적 바탕과는 관계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먹을거리를 취하고자 하는 생존경쟁에만 기울어질 것도 못되고 또 미에만 도취될 것도 못된다. 활동과 휴식 그리고 각성과 수면을 되풀이하면서 생활이 이어져 나가듯이 실제의 세계와 미의 세계는 서로 손을 잡아 인간생존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 태도와 미적 태도는 어느 것 하나만이 있으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 못된다. 다만 불완전한 인간은 지나치게 한쪽 편으로 기울어지고 다른 쪽의 태도를 결여하는 하나의 세계를 가지는 일이 있다.

다같은 원시림 속에 서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미의식의 수준과 교양 그리고 평소의 사색내용에 따라 뽑아낼 수 있는 미의 값은

크게 서로 다를 수 있다. 한번 접촉한 자연의 미가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 정신순화의 효과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잠시의 영상으로 비쳤다 어디론가 쉽게 사라져서 그 효과가 상실되고 마는 사람도 있다. 아름다움이 주는 망연자실, 황홀, 그리고 정신에 퍼져 들어오는 자극성 등의 상태가 있을 때 인간의 미적 활동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오랜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아름다움이란 무어나 할 때 그 뜻의 서술은 쉽지 않다. 불에 손이 닿으면 뜨겁다. 뜨거움이란 무언가 물으면 역시 말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것은 체험을 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같은 대상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미적 감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일치성이란 것이 있다.

참나무는 집단을 만들어야 아름다움을 완성시킬 수 있다. 참나무 숲을 감도는 오솔길을 명상과 함께 걸어보라. 천천히 걸어보라. 마음을 비우고 혼자서 걸어보라. 알 수 있다.

6. 로브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학술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나무의 숲 탐방여행에 참가해서 찾은 곳이 유명한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의 집이었다. 그 집은



▲로브르참나무의 노거목.
스웨덴 린네의 집 부근. 1974. 8. 10

린네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나지막한 집이었다. 그러나 그는 학문활동을 할 때에는 스웨덴 숲 살라에서 30여년간을 지냈다. 린네의 집 부근에 큰 참나무가 있었는데 학명이 쿠엘쿠스 로브르(Quercus robur)라 했다. 사전에 보면 이 나무의 통속명은 잉글리쉬 오우크(English Oak)인데 수고가 30m에 이르는 교목이고 유용한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수종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본 이 참나무는 스웨덴에서 가장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노거목이었다. 줄기에 터널처럼 크게 구멍이 나 있어 여름에도 그 안이 시원해서 음식물을 보관하는 말하자면 냉장고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 구멍을 지나가면 행운이 오고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사람

들은 이 구멍을 지나가곤 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종류의 습속은 있기 마련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본다는 인간들의 사고는 나쁠 것 없다. 다른 수종치고도 스웨덴에서는 이보다 더 큰 줄기를 가진 나무는 없었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1978년 5월 20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문화인의 예절로서 이런 사람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미리 그 사정을 연락해 놓고 양해가 이루어진 뒤에 찾아가는 것이 의당하다. 이쯤의 일을 모르는 자신이 아니었지만 사정이 그쯤 되어서 나는 예고없이 조지아주립대학교 입학과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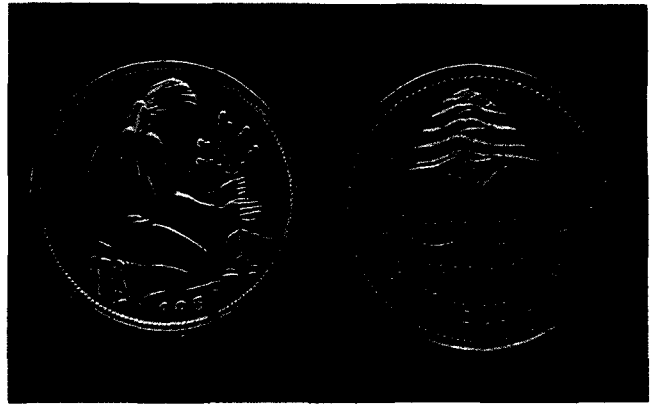


▲상수리나무의 거목. 조지아대학교내.
1978. 5. 20

갔었다. 조금은 대단한 행위였다. 임과대학 학장실에 들어선 나는 나의 신분을 밝히고 그곳 임학과 교수 몇 분을 만나 학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온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 말을 들은 교수는 기꺼이 나의 방문을 환영해 주면서 방문스케줄을 짜 주었다. 나는 그들의 너그러움과 친절에 놀랐고 이것이 되려 무계획한 나의 방문을 더 부끄럽게 해주기도 했다. 연구실, 실험실 등을 보여주고 길이 30cm쯤 되는 솔방울을 선물로 주는가하면 연구내용의 소개도 자세하였다. 이 솔방울은 아직껏 우리집 거실의 벽에 달려 있으면서 아마추어 인사들을 놀라게 해 주고 있다.

그때 임학과와 쿡크스(Cooks) 교수가 구내 잔디밭으로 나가 한국에서 들어온 상수리나무를 보러가자고 했다. 정확한 기록을 얻지 못했지만 가슴높이의 줄기직경이 근 1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땅이 깊고 절고 알맞은 습기에 온난한 기후로 이곳 상수리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을 것이다. 상수리나무는 원래 따뜻하고 비옥한 깊은 땅을 즐긴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더 힘찬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나는 이 나무더러 고향의 사람이 왔다고 했지만 그 나무가 그 뜻을 알아차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좋은 교포수목이었다.

내가 독일을 여행한 적은 서너 번을 넘는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참나무를 심는 소녀. 독일의 동전. 오른쪽은 레바논 시이다. 레바논 동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독일 동전이 있었다. 그 중 하나에 참나무 묘목을 심는 소녀의 상이 있다. 참나무는 굳셈, 깨끗함, 건강, 장수, 씩씩함, 그리고 유용한 쓰임새 때문에 독일인은 그들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녀라는 한량없는 유연함과 이 나무의 강건함은 좋은 대조가 된다. 어린 나무와 어린 소녀라는 엄청난 미래를 안고 있는 점도 조화를 이룬다. 이 한 나무가 자라서 독일을 지켜준다는 그 신념으로 이 소녀는 한 그루의 참나무 묘목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이 나무가 자라면 인간들은 그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 무한한 환경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참나무를 어린 소녀가 정성들여 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미래의 영광을 위한다는 철학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동전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 나무를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간혹 이 동전을 나는 나누어준다. 이 동전이 바닥이

나면 나는 한번 더 독일을 여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7. 꿀밤나무와 구누기

사투리 말로 꿀밤하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등 할 것없이 그 열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꿀밤나무라 하면 참나무와 같은 뜻의 총명(總名, total name)이다. 꿀밤목이라 하면 그 재료가 어느 수종의 열매인가를 따지지 않으나 남쪽지방에 있어서는 마을주변의 산에 상수리나무가 더 흔하기 때문에 상수리나무가 꿀밤나무의 대표격으로 될 수도 있다.

일본사람들은 상수리나무를 구누기(クヌギ)로 부른다. 사람들은 말(고유명사)이 생겨난 출처의 이유를 흔히 고찰하고 이것이 곧 어원학(語源學)이다. 나무에 대한 우리말도 어원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뚜렷한 정설(定說)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나무 이름은 어원의 정설을 세우기 어렵고 말하자면 귀결이, 코결이 식으로 사람에 따른 개인 개인의 견해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가령 은행나무, 피나무, 목련, 후박나무, 주목, 해송 등등은 그 어원이 뚜렷하고 상대가설적인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어학자들은 나무 이름에 대한 어원을 곧잘 피력하고 있다. 이곳 구누기에 대한 그들의 설(設)을 살펴본다.

첫째로 상수리나무(구누기)와 밤나무(구리)는 잎 모양이 닮아 있다. 상수리나무의 거치는 끝쪽이 희게 투명한데 이 점이 밤나무와 달라서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밤나무에 닮은 나무』란 뜻의 栗似木을 일본말로 표현하면 『구리니기』로 되고 이것이 변해서 『구리기』, 『구누기』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닐까.

둘째는 열매의 식용가치가 높아 『食木』이란 명칭을 얻고 그 발음 『구이노기』가 변해서 『구누기』로 되었을 것이라 한다.

세째는 일본의 경행이라는 임금의 지방순시를 할 때 나무높이 970장(丈)이나 되는 나무를 보고 부하들에게 그 나무의 이름을 물었더니 역목(歷木)이라 대답했다. 그때 임금은 이 나무 이름을 어목국(御木國)으로 지었는데 그 뒤 이것을 기념해서 國木으로 하고 그 발음이 『구니기』인바 변해서 『구누기』로 되었다는 설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기록으로서 찾아볼 수 있다.

네째는 구목(久木)으로 써서 『구누기』로 읽는데 그 뜻은 뿔감으로 쓰는 나무의 총칭이라 하는 설이 있다. 이것도 애매한 어원이다.

다음 다섯째의 설이 그 중 가장 신빙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날 일본 사람들은 꿀밤묵 만드는 방법을 우리나라 사람들로 부터 배웠다. 조선조시대의 일이다. 이러한 일을 상고할 때 참나무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때 나무이름도 우리의 것이 건너가서 일본말 명칭으로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학자 고바야시(小林) 등은 우리말이 변해서 그들의 『구누기』의 어원으로 되었다는 설을 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피력하고 있다.

일본어로 밤나무를 『구리』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말 『굴(Kul)』에서 연유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되어있는 듯하다. 상수리나무의 『구누기』도 굴(Kul)에서 온 것이라 한다. 우리는 『꿀밤』이라 발음하지만 일본말에는 『꾸』가 없고 이것을 『구』로 발음한다. 그래서 『꿀밤』은 그들로서는 『굴밤(Kul-bam)』으로 된다. 굴(Kul)이 변해서 일본어 『밤나무』 『구리』로 되고 한편으로 『Kul+木』, 이것이 『구누기』로 되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굴밤나무가 구누기로 될 가능성이 짙다.

꿀밤에 대한 일본말은 『동구리(團栗)』인데 동구리라하면 모든 참나무속 나무의 열매를 통칭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동구리는 모양이 둥근 밤이란 뜻에서 왔다.

8. 나라(Nara) 그리고 가시(Kashi)의 어원

참나무 속은 낙엽성의 것과 상록성의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고 했다. 낙엽성의 나무가 대부분이고 상록성의 것은 수가 적다. 낙엽성 참나무의 대표는 유럽참나무로서 이 나무를 옛적부터 숲의 왕자라 해서 지극히 신성한 것으로 취급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나라(Nara)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다. 나라의 뜻에는 탄력성이 있는 듯하다. 먼저 모든 낙엽성 참나무를 총칭해서 『나라』라 하고 또 좁은 뜻에서는 물참나무, 졸참나무 등 대표종을 지칭하기도 하고 더욱 좁은 뜻으로는 졸참나무만을 『나라』로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앞 뒤를 생각해서 『나라』가 무엇을 뜻하는 범위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고바야시의 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쪽지방에서는 물참나무(ミズナラ)를 가락(Kalak)나무라 하는데 이때 『가락』의 뜻은 방추(紡錘, 북)를 말하고 꿀밤의 모양이 북에 닮아 있어서 이렇게 이름 지었다 한다. 이때 『가락』의 발음



▲신갈나무의 그림자. 창경원에서. 1993. 3. 24

이 일본말 「나라」로 변했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말 「나라」는 낙엽성 참나무 특히 백색계 참나무류를 뜻하는데 그 어원은 우리 말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것도 하나의 설이긴 하겠으나 믿음성이 높다.

상록성 참나무를 우리는 가시나무로 말하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가시」로 말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말 명칭이 일본말로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 시경의 떡갈나무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 떡갈나무가 등장한다. 소남(召南) 편에 「뜰에 죽은 노루가 있다.」라고 하는 시에 떡갈나무가 나오고 있다. 원문은 적지 않고 필자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시를 소개한다.

뜰에 죽어 있는 노루
흰 띠풀로 어서 싸자.
봄을 느낀 아가씨 있어
남자가 수작 건다.
숲에는 떡갈나무
뜰에는 죽은 노루
흰 띠풀로 노루를 싸고
끈으로 땀감을 묶자.
구슬같은 여자 있다.
가만히 다가와서
앞치마에 손 대지 말라.
삼살개 짓게 하지 말라.

이 시는 남자의 유혹과 여자의 표면적인 거절을 노래한 것이라 한다. 죽은 노루란 표현은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무저항 상태에 놓여있는 아가씨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흰 구슬과 같은 아리따운 소녀는 훌륭한 청년을 얻는데 적격이란 것이다.

시 중에 떡갈나무와 땀감이 등장하는데 땀감을 끈으로 묶는다는 행위는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의 시에 종종 쓰여지는 기법의 하나이다. 죽은 노루를 흰 띠풀로 감싼다는 것은 남녀 결합의 암시이다. 상징적으로 암시하던 유혹의 권유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성스러운 상징의 노루(사슴)가 삼살개로 넘어가는 것과 대조가 되어 흥미롭다.

떡갈나무는 시경의 시대부터 이미 땀감나무로 이용되었다는 말인가. 떡갈나무의 처지가 땀감 정도라면 그것도 문제이다.

10. 우연히 만난 나무들

1991년 양력설을 지나고 아직 설날 기분이 다소는 남아 있는데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를 찾은 것은 그곳에 감을 재료로 해서 식초를 만드는 소규모의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주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분은 나에게 감식초 한 병을 선물로 주었다. 식초로서는 질이 좋고 농가부업으로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것은 남쪽이라 감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 분은 그곳 자기 집 앞에서 있는 큰 마로니에 한 그루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나무이고 지난날 외국인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라 한다. 서울 덕수궁 쪽에도 큰 나무가 있으나 이것이



▲상수리나무 가로수. 전북 원주 고산소향리. 1991. 1. 20

더 초기에 심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곳이 좀 색다른 곳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주인과 작별을 하는 길가에 상수리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분의 말로는 더 많이 심을까 했는데 이 정도의 상수리나무 길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상수리나무 고유의 특성으로서 한겨울인데도 잎을 달고 있었고 공기가 깨끗해서 그랬는지 선명한 노랑의 단풍이 아름다웠다. 늦가을이면 온 나무의 잎은 떨어져서 나뭇가지로 되어 나뭇대로의 미를 창출해내는데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등은 겨울이 되어도 심지어 초봄에 이르기까지 잎을 달아 그 색깔을 자랑하는 것은 황량한



▲신갈나무의 단풍. 설악산 수렴동 계곡. 1984. 10. 20

겨울을 어루만지는 그들의 부드러운 손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은 무의식적이 아니고 무언가 예정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좋은 상수리나무 길가나무를 뒤로 하고 다른 곳에서도 저러한 길나무가 만들어졌으면 했다. 무척 야성적이고 일면 거칠다고도 생각되는 아름다움이 좋았다. 늦가을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다보면 길 양편 곳곳에 무더기를 이룬 참나무의 단풍을 볼 수 있다. 그 선명함이 가을하늘의 투명에 이어져서 우리나라 자연의 황홀함을 잘 보여준다. 이래서 우리 강토는 아름답다.

10년도 넘은 1984년 10월 나는 설악산 수렴동 계곡을 지나 대청봉을 향하고 있었다. 수렴동 산장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복자기나

무의 단풍길을 지나고 나면 신갈나무의 단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렴동계곡은 단풍으로 가득차 있었고 사이사이에 소나무가 서서 그 연결을 깨뜨리고 있었다. 나는 신갈나무가 이렇게도 명품의 단풍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장한 신갈나무를 찬양해 주었다. 수렴동 산장에 다다랐을 때에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산장 주인은 나에게 특별히 독방을 나누어 주었고 장작불 내음이 고향의 맛을 풍겨 주는데 방바닥은 알맞게 따스했다. 산장의 후한 인심에 감사하면서 내일의 예정을 꿈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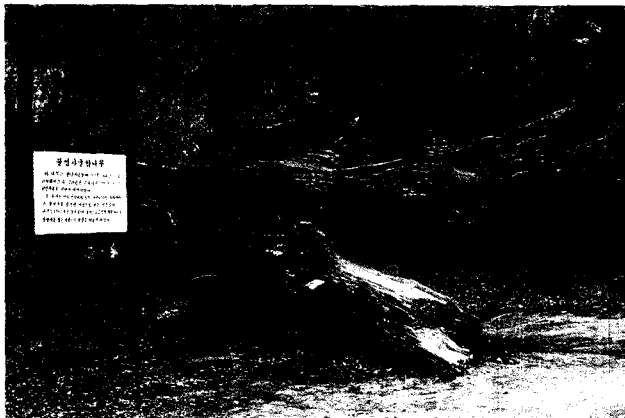
1994년 10월 26일 나는 오대산 쪽 높은 산길을 지나고 있었다. 차를 세우고 산맥의 용트림하는 장엄한 기복과 굴곡을 내려다보

면서 수백년을 살아온 나무들의 모습도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곳 길가에서 큰 신갈나무의 거목 한 그루를 볼 수 있었다. 그 거창한 위용의 줄기와 가지모습에 탄성이 튀어 나왔다. 이 신갈나무는 이곳 산악의 주인공으로 아니면 지배자로 넉넉한 품위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군림(君臨)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나무에 적격한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 신갈나무의 총수적으로 보였다. 나의 카메라에 남은 필름의 최후의 한 장에 담겨진 이 나무의 장관은 나에게 비장해야 할 소중한 품이다. 또 한번 다시 내가 이 나무를 찾아갈 기회는 좀처럼 올 것 같지 않아서 더욱 그러하다.

경북 불영사를 찾아가다 보면 절간을 멀리 두지 않고 길가 한쪽에 큰 나무 줄기의 둥치가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안내간판이 서 있다. 간판에 쓰기를 이 나무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651년 불영사가 창건될 때 심은 것으로 1300년의 수를 누리다가 약 30년전에 고사한 것으로 천연기념물 157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왔다. 수고 35m, 가슴높이줄기둘레 6.2m를 기록한 거창한 몸집의 나무였음을 말해준다. 모든 생물은 그 수명에 한계가 있는 법으로 1300년의 굴참나무라 하면 하늘이 알아주는 존재였다고 믿어진다. 다른 곳에서도 말했지만 굴참나무는 참나무류 중에서 오래사는 나무로 여겨진다. 불영사 주



▲신갈나무의 노거수. 모래산에서. 1994. 10. 26



▲굴참나무의 잔해. 천연기념물 157호. 경북 불영사. 1988. 4. 12

변에는 원래 굴참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그 주변의 사찰림을 보면 밋밋한 붉은 줄기의 소나무와 역시 곧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굴참나무가 서로 같은 공간을 나누어가면서 동반자로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필자가 이곳에 사이좋게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따져보면 갈등같은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산과 들을 지나다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던 신기한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러한 노거목은 지난날의 그곳 수목사회의 잔존종(殘存種)일 수 있고 그것으로 그곳 원래의 숲의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다. 귀중한 나무들이다.